

Cy Choi 최철용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

이진민

신구대학교 섬유영상코디과 조교수

요약

본 연구는 고유의 미학적 시각을 가지고 국내외 마켓에서 그 영역과 존재감을 확장해 가고 있는 Cy Choi 최철용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표현 특성을 고찰하고 미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Boundary(경계)'를 브랜드 철학으로 하는 Cy Choi는 클래식한 하이엔드 감성의 남성복으로, 2009년 런칭 이후 10회의 정기 컬렉션과 다수의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하였다. 최철용의 패션 디자인에 표출된 미학적 시각은 개념미술적 접근방식과 탈경계와 실험적 관점으로 정리되었다. 최철용의 모든 컬렉션은 텍스트(text)로부터 출발하며, 텍스트에 대한 의미 해석을 통해 개념을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옷이라는 최종 대상으로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념미술적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미학적 시각을 근거로 최철용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미술적 접근 방식에 바탕을 둔 개념성이다. 최철용의 패션디자인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조형성과 더불어 내재된 관념적 사고를 중시하는 개념성을 내포한다. 둘째, 예술적 실험성이다. 이는 옷에 대한 부정과 의문을 바탕으로 '낮설게 하기'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예술적 오브제로서 옷을 바라보며, 룩이 없는 룩 북, 1인 패션쇼, 쇼트 필름 제작, 공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단순한 옷과 패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예술적 실험성을 표출한다. 셋째, 최소성이다. 최철용은 텍스트로 제시되는 '개념'의 표현을 위하여 의복을 분리하고 재구성하거나, 해체, 자르기, 계획된 미완성 등의 표현 형식을 활용함에 있어 단순하고 절제된 최소 표현을 유지한다. 최철용의 디자인이 내포하고 있는 최소성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형태로부터 본질과 개념, 의미를 찾는 형태적 최소화와 단순성을 보여준다. 이는 텍스트와 의미,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그의 개념주의적 접근 방식을 조형적으로 완성하는 가치이자 새로움에 대한 추구이다.

주제어 : 한국 패션 디자이너, 최철용, 개념성, 예술적 실험성, 최소성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990년대 후반, K-Pop과 드라마 등 대중문화 콘텐츠 중심의 중국에서 시작된 한류(Korean Wave)는 2000년대 들어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 남미로 확산되었다. 현재의 한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잡으며 패션과 식문화, 의료와 같은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중에서도 패션은 한류 스타들에 대한 관심과 연계되어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적 현대화의 감성을 담은 한국의 패션 디자인 또한 세계 무대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의 패션 디자인은 20세기 중반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오면서 1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해 왔으나 글로벌 시장의 진입에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변동을 경험하고 성장한 뉴 제너레이션(New Generation) 디자이너들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뉴욕, 파리 등 글로벌 시장의 중심에서 보다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디자이너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패션의 세계화를 위한 공적 차원의 노력들 또한 구체화 되면서 'Seoul's 10 Soul', 'Concept KOREA' 등 다양한 전략과 지원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패션의 오늘과 내일을 이끌어갈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 패션의 글로벌 성장 동력을 제고하고, 21세기 한국 현대 패션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동안 한국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 디자인의 활용을 통해 우리 고유의 차별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는데, 전

통 복식으로부터 차용된 한국적 요소의 활용 방식을 분석하고, 문양, 색채 등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를 고찰하는 연구들이 중심이 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의 패션 디자인을 이끌어 온 주체라 할 수 있는 한국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디자이너 연구는 해외 디자이너에 집중되어 왔으며 한국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소개나 자료는 신문이나 잡지,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에서 다루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이러한 부분의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패션 디자이너를 고찰하는 연구(김윤희(2014)¹⁾, 이민선(2014)²⁾)가 시도된 바 있으나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 한국 패션 디자인의 현재를 점검하고 그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며, 한국 패션의 글로벌 성장 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써 한국 패션 디자이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고유의 미학적 시각을 가지고 국내외 시장에서 그 영역과 존재감을 확장해 가고 있는 Cy Choi 최철용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표현 특성을 고찰하고 미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Cy Choi'로 파리에서 먼저 주목을 받은 디자이너 최철용은 유럽에서 디자인 컨설턴트 및 아트 디렉터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문법을 통한 컬렉션 전개와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브랜드와의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 2012년 삼성디자인펀드(SFDF) 수상자, 2013, 2014년 Seoul's 10 Soul 디자이너로 선정되는 등 미학적 잠재성과 글로벌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디자이너이다.

본 연구는 한국 디자이너의 패션 미학을 국내외에 알리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한국 현대 패션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유명 패션 하우스의 수석 디자이너

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세대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패션계의 추세에 대응하여, 한국 신진 디자이너의 성장과 그 디자인 특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한국 패션 디자인의 미래 경쟁력을 확인하고, 성공적 세계화를 향한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와 정보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철용의 정기 컬렉션 및 브랜드 협업, 아트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작품을 분석하고 미학적 시각에 근거하여 표현 특성을 고찰한다. 연구 대상은 2009년 Cy Choi 런칭 이후, 2010 S/S 시즌의 첫 번째 컬렉션부터 2014 F/W 컬렉션에 이르는 총 10회의 정기 컬렉션과 동일한 기간(2009년~2014년 8월)동안의 디자이너 최철용의 아이덴티티와 예술적 철학을 보여주는 브랜드 협업 및 아트 프로젝트 작업을 포함한다.

둘째, 미학적 시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최철용의 작품에 나타난 미적특성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신문 및 잡지, 인터넷 검색 자료, 디자이너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디자이너로서의 철학과 디자인 전개 과정 등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미적 특성 도출을 위한 관련 논문 및 문헌의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최철용의 작품 사진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각 자료는 매 시즌 컬렉션을 위해 디자이너가 제작한 이미지 북과 룩 북을 바탕으로 고찰하였으며, 영상 자료는 디자이너 홈페이지³⁾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디자이너의 정체성과 작업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디자이너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Cy Choi 패션 디자인에 대한 미학

적 시각을 정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2013년 3월과 4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20분씩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Cy Choi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문항은 성장 배경과 교육, 디자인 철학, 영감과 작업 프로세스,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 브랜드 경영과 마케팅, 글로벌 비전 등에 대한 60여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변경이 가능한 반표준화 면접형태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디자이너의 철학과 전개 과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근거 자료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미학적 시각 정립과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하여 최철용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II. Cy Choi 최철용의 작품세계

1. 디자이너 최철용

최철용은 홍익대학교 섬유미술과와 동대학원 패션디자인과를 졸업 한 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2002년, 이태리 밀라노 도무스(Domus) 아카데미로 유학하여 여성복을 전공하였다. 도무스 아카데미 재학 시절, 닐 바렛(Neil Barrett)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가 있었고, 2003년에는 브랜드 멜팅 팻(Melting'pot)의 디자이너로 일하였다. 2004년, 멜팅 팻에서 알게된 동료 다리오 마랑고니(Dario Marangoni)와 함께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다양한 브랜드의 컨설턴트로 일하였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멜팅 팻의 남녀 캐주얼웨어 디자인과 브랜드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멜팅 팻의 프리미엄 라인인 'pure'를 런칭하였다. 2007년에는 'Blue bell by Wrangler'의 프리미엄 라인인 'Redux'를 런칭하고 역시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스타일 베

이스(style base)가 아닌 프러덕트 베이스(product base)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컨설팅 작업은 단지 옷을 만드는 것 그 이상, 브랜드 전반을 총괄하는 작업이었다. 브랜드를 위한 리서치부터 기본적인 제품 라인을 구성하고, 프리미엄 라인 및 새로운 라인 런칭을 주도하였으며, 소재와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브랜드 운영 전반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웠고, 마케팅과 디자인 감각 사이에서 균형을 조율하는 시각을 갖추는 등 브랜드 운영을 위한 기초를 단단히 다졌다. 특히 다양한 프러덕트 베이스 브랜드에 대한 컨설팅 경험은 Cy Choi가 고유의 브랜드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성의 측면을 간과하지 않는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컨설턴트로 경력을 쌓아가던 최철용은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브랜드 런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벨기에 데님 브랜드 Blue Bell by Wrangler의 104주년 기념 재런칭 프로젝트를 계기로 자신의 브랜드 런칭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해당 프로젝트는 브랜드 로고에서부터 제품 디자인과 생산에 이르는 브랜드 런칭의 전 과정을 디렉팅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를 통해 브랜드 런칭 작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최철용은 2007년 6월, 밀라노에 ‘Cy Choi’라는 이름의 단독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컨설팅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도무스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파리, 이태리 쇼룸과의 미팅을 통해 브랜드 런칭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으며, 2009년 6월, 마침내 파리의 쇼룸 MC2에서 ‘Cy Choi’를 런칭하였다. 런칭 이듬해인 2010년, 서울에서 솔로 전시회를 개최하며 국내로 기반을 옮겼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 시즌 서울패션위크에 참가하여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런칭 이후 매 시즌 파리의 쇼룸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였으며, 길지 않은 브랜드 운영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며 국내외 마켓과

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최철용은 글로벌 디자이너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디자인의 창의성과 비즈니스 역량을 균형있게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⁴⁾ 2011년, 2012년 삼성디자인펀드(SFDF)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2013년에는 Seoul's 10 Soul 디자이너에 선정되었다. 2014년 9월 현재, Cy Choi는 이태리,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 스페인, 러시아, 싱가포르, 중국, 홍콩 등 12개국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였으며, Basic House, 8Seconds, Sanshoe&co 등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와의 활발한 협업 및 2014 F/W시즌에는 세컨브랜드 ‘Cy Choi 1/4(Quarter)’을 런칭하였다.

2. Cy Choi 최철용의 패션 작업

1) 패션 컬렉션

‘Boundary(경계)’를 브랜드 철학으로 하는 Cy Choi는 클래식한 하이엔드 감성의 남성복으로, 2009년 런칭 이후 10회의 정기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Cy Choi는 모든 컬렉션에 텍스트(text)를 먼저 부여하고, 그 의미로부터 컬렉션의 테마를 구체화하며, 텍스트를 이미지화 하는 과정에서 포스터와 이미지 북, 룩 북을 제작함으로써 과정을 기록하는 등 디자이너만의 고유한 미학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미지 북과 룩 북을 통해 제시된 디자인은 PT쇼 또는 런웨이 쇼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최철용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Cy Choi 패션 컬렉션의 텍스트와 기획 방향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며, 시즌별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1) 2010 S/S ~ 2010 F/W

2010 시즌은 Cy Choi 런칭 초기로, 브랜드 철학과 아직 명확하지 않은 Cy Choi 만의 감도를 찾기 위한

시기였다. 2010 S/S 컬렉션은 ‘cut-out + boundary’ 라는 제목으로 브랜드 철학을 전면에 내세운 최철용의 첫 컬렉션이었는데, 컷-아웃 기법을 바탕으로 종이를 잘라서 드러내는 느낌을 옷으로 재현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2010 F/W 컬렉션 ‘Interject’는 ‘불쑥 끼어들다’라는 의미로,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에 낯설고, 의외의 것을 접목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옷의 부분을 해체하고, 그 부분에 이질적인 소재와 컬러, 디테일을 접목하는 직설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기능적으로 설계된 아웃 포켓 디테일의 다양한 활용이 두드러진 컬렉션이었다.

(2) 2011 S/S ~ 2011 F/W

2011 시즌은 브랜드의 기반을 국내로 옮겨와 국내 무대에 Cy Choi를 정식으로 소개한 시기였다. 소격동에 위치한 aA디자인 뮤지엄에서 전시형식으로 발표된 2011 S/S 컬렉션은 ‘1 1 root 2’ 라는 텍스트에서 시작하였는데, 1:1:root2 라는 수학적 비율과 삼각형의 개념에서 의미를 확장하였고, 소매의 각도를 조절하고, 옷의 무게중심을 흐트러뜨리는 등 경계를 넘나드는 철학적 의미를 반영하였다. 2011 F/W ‘Inosculation’ 컬렉션은 서로 다른 종(種)의 결합을 통해 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각각의 장점과 접합함으로써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나가자 의도한 컬렉션이었으며, 서울패션위크에서 PT쇼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3) 2012 S/S ~2012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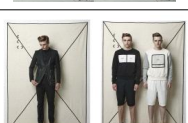


2012 시즌은 Cy Choi의 아이덴티티 정립에 보다 집중한 시기였다. 2012 S/S 컬렉션 ‘Connotation’은 ‘내연과 외연’이라는 의미로, 내부의 숨겨진 의미와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 사이의 관계를 찾고자 의도하였다. 즉,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조합해 새로운 매개체를 만들어내자 의도하였으며, 의상은 전반적으로 무채색과 베이지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소재의 믹스 매치, 간결한 실루엣 등과 결

합하였으며,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 외국인들을 모델로 세운 PT쇼가 인상적이었다. 2012 F/W 컬렉션 ‘Balloonist’는 ‘탐험’을 주제로 하였는데, ‘Balloon’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신대륙과 오지를 탐험하던 유럽의 귀족 남성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특유의 컷팅 라인과 레이어링 방식으로 연출한 의상들을 점(dot), 선(line), 삼각형(triangle) 형태의 여섯 개의 맵 위에 모델들을 위치시킨 독특한 감각의 PT쇼로 발표하였다.

(4) 2013 S/S ~ 2013 F/W

2013 시즌은 SFDF, Seoul's 10 soul 등 디자이너 최철용의 가능성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바탕으로, 브랜드 협업, 악세서리, 소품으로 영역을 확장한 콜라보레이션 작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런웨이 쇼를 시작하며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해 간 시기였다. 2013 S/S 컬렉션은 ‘스펙트럼’을 주제로, 일본의 가죽브랜드 레더 팩토리 로베로(Leather Factory Roberu)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안경, 가방, 신발 등 액세서리 라인을 함께 발표하였다. 런웨이 쇼로 진행된 컬렉션은 댄 플라빈(Dan Flavin)으로부터 영감받은 무대 연출을 선보였으며, 무채색 위주의 기존 Cy Choi 작업에 옐로우, 그린 등 하이라이트 컬러를 사용하여 스펙트럼을 이미지화하였고, 캐주얼한 아이템의 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이었다. 2013 F/W 컬렉션 ‘Deux Ombre’는 ‘두 개의 그림자’라는 의미로,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 당구장에서 전시로 먼저 발표 한 후, 서울패션위크에서 런웨이 쇼를 진행하였다. ‘하나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곧 둘을 전제한다’는 컨셉을 표현한 이 컬렉션에서 최철용은 구조적인 형식과 소재의 양면적인 활용, 겹쳐입기 등을 통해 재창조된 ‘옷’을 보여주었다.

<표 1> Cy Choi 패션컬렉션

컬렉션	주제어(text)	내용(contents)	이미지(image)	대표 룩(look)
2010 S/S	cut-out +boundary	컷-아웃 기법을 바탕으로, 종이를 잘라서 도려내는 느낌을 옷으로 재현하는 과정을 보여줌		
2010 F/W	Interject	‘불쑥 끼어들다’ 라는 의미로,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과 낯설고, 의외의 것의 접목을 의도		
2011 S/S	1 1 root 2	1:1:root2의 수학적 비례를 의미하며, 유틸리티와 무리수의 관계, 삼각형과 관련된 비례를 이미지와 옷에 적용		
2011 F/W	Inosculation	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속성을 결합함으로써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객체의 탄생을 유도		
2012 S/S	Connotation	내연과 외연이라는 서로 다른 함축적 의미를 레이어링 기법으로 조합하여 새로운 매개체를 창조		
2012 F/W	Balloonist	상상의 여행,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		
2013 S/S	Spectrum	어두움과 밝음의 경계가 모호한 스펙트럼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호함을 표현		
2013 F/W	Deux ombres	두 개의 그림자, 곧 ‘하나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곧 둘을 전제한다’는 의미로 어떠한 대상과 공존하는 대상의 모습과 관계를 탐구		
2014 S/S	Image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곧 어떠한 텍스트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연상될수 있음을 이미지화		
2014 F/W	Figure	옷과 조형적 오브제가 만나 새로운 실루엣, 곧 다른 ‘Figure’를 만들어냄		

(출처: www.cychoi.com)

(5) 2014 S/S ~ 2014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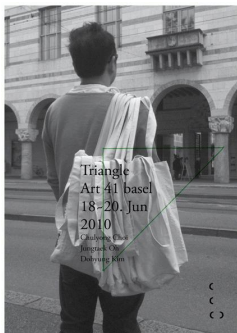
2014 시즌의 패션쇼는 시인, 조형예술가와의 협업으로 패션의 경계를 더욱 확장하고, 다양한 오브제의 사용을 통해 최철용의 미학을 보여준 시즌이었다. 2014 S/S 컬렉션 'Image'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고찰, 곧 동일한 텍스트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연상될 수 있다는 컨셉에서 출발한 쇼였으며, 다양한 텍스트가 들어간 피켓, 쇼핑백 등의 오브제 사용, 고밀도 자수를 이용한 그래픽 작업, 슬립 핏에서 오버 핏까지 다양한 핏의 심플 룩이 발표되었다. 2014 F/W 컬렉션 'Figure'는 옷과 오브제를 접목하여 일반적인 룩을 또 다른 'Figure'로 만들고자 의도한 컬렉션이었다. 조형예술가 장성은과의 협업을 통해 비닐봉투, 박스테이프 등을 재료로 작업한 오브제와 풍선, 비닐 등을 이용한 퍼포먼스가 최철용의 옷과 결합하여 새로운 실루엣으로 완성되었다.

2) 아트 프로젝트

Cy Choi는 정기적인 패션 컬렉션과 더불어 런칭 초기부터 매 시즌 1회 이상의 프로젝트와 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Cy Choi 홈페이지에는 그가 작업한 프로젝트를 따로 분류, 정리하여 게재하고 있을 만큼, 최철용이 아트 프로젝

트에 기울이는 관심과 노력은 각별하며, 이는 Cy Choi를 다른 디자이너 브랜드와 차별화하는 요소이자 최철용만의 예술적인 실험성과 철학을 보여주는 고유한 부분이라 하겠다. 지난 5년 간의 Cy Choi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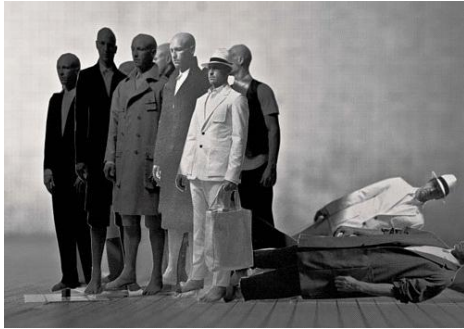
먼저, 매 시즌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만들어 온 이미지 북과 룩 북, 트레일러(trailer) 영상 작업은 Cy Choi의 미학적 시선을 대표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학부에서 미술을 전공한 경력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끈이 3개 달린 삼각 가방을 만들어 제 41회 아트 바젤(Art 41 Basel) 페어에 참가하였다<그림 1>. 같은 해 10월, 소격동 aA 디자인 뮤지엄에서 2011 S/S 컬렉션의 프레젠테이션을 겸하여 개최했던『The Exhibition』에서는 접합과 결합을 통해 수공으로 작업한 컨버스(CONVERSE) 슈즈와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고<그림 2>, 2011 S/S 컬렉션을 위한 미니어처 패션쇼와 쇼트 필름 작업<그림 3>도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핸드 프린트 티셔츠 프로젝트'<그림 4> 및 『Folding Exhibition』에서 2600×1600 mm에 이르는 초대형 크기의 화이트 셔츠<그림 5>를 전시하였다. 2012년, 『프로젝트 72-1: 실험실로서의 학교展』은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상상력의 공간으로 변화시킨 프로젝트성 전



<그림 1>
Art Basel Project (2010): 끈이 3개 달린 삼각가방
(출처: www.cychoi.com)



<그림 2>
『The Exhibition』 (2010)
(출처: www.cychoi.com)



<그림 3>
short film : 1 1 root2 (2010)
(출처: www.cychoi.com)



<그림 4>
Hand printed tee(2011)
(출처: www.cychoi.com)



<그림 5>
『Folding Exhibition』(2011)
(출처: www.cychoi.com)



<그림 6>
『Project 72-1:실험실로서의 학교展』(2012)
(출처: www.cychoi.com)



<그림 7>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2013)
구슬모아당구장 『Deux ombre』
(출처: www.cychoi.com)

시로, 오정택, 김도형, 안마노, 김권진과 협업하여 패션디자인과 영상, 사진과 그래픽 디자인이 결합된 작품을 선보였다<그림 6>. 2013년 3월에는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 당구장에서 『Deux Ombre』라는 전시를 개최하였는데, 2013 F/W 시즌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겸했던 이 프로젝트에서는 영상, 사진, 드로잉, 이미지 등의 전시와 패션 퍼포먼스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그림 7>. 2013년 Sanshoe &co., 8Seconds, Roberu, BEAKER 등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였고, 2014 시즌에는 시인 유희경, 조형예술가 장성은 등과 협업을 통해 영상과 사진을 비롯한 시각 이미지, 룩 북과 프레젠테이션, 퍼포먼스, 텍스트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프로젝트 결과물을 선보임으로써 패션 디자인의 경계를 확장하였다.

III. Cy Choi 최철용의 패션디자인을 바라보는 미학적 시각

1. 개념미술(Conceptual Art)적 접근

최철용은 타 예술 분야로부터 미학적 요소들을 차용해왔으며, 현대미술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조예와 관심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다양한 형식을 패션에 적용해 오고 있다. 특히 그의 지난 컬렉션과 일련의 프로젝트를 살펴볼 때, 다양한 예술적 현상 중에서도 ‘개념 미술(Conceptual Art)’에 대한 탐구와 사유를 통해 패션에 대한 접근 방식을 찾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념미술은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예술작품의 제작과 작품을 보는 행위를 분리시키는 시각예술

형식인 개념주의(Conceptualism)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미술장르로, 완성된 작품 그 자체보다 작품 제작의 아이디어와 제작 과정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반 전통적인 미술태도를 말한다.⁵⁾ 개념미술은 미술작품의 지각적 대상보다 개념적인 접근방법이 우선시되는 미술양식으로, 1960년대 이후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끌어 오면서 다양한 양상의 작품 만큼이나 그 정의와 범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1961년, ‘컨셉트 아트(Concept Art)’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뉴욕 플럭서스 그룹의 작가이자 연주자 헨리 플린트(Henry Flynt)에 따르면, ‘개념’은 언어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개념미술은 언어를 재료로 하는 예술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⁶⁾ 즉, 개념미술이란, 사물을 이미지로 재현하는 미술 대신 단어나 문장 등의 텍스트(text)를 이용하는 미술이라 할 수 있다. 개념미술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조셉 코슈드(Joseph Kosuth)는 ‘개념미술가들의 경우 형태나, 색채 또는 재료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작업하며, 작품은 오직 ‘개념’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철학적인 정의를 내린 바 있다.⁷⁾ 이처럼, 개념미술은 ‘의미’와 ‘개념’이 곧 작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작가의 아이디어와 개념이 가장 중요하며, 물질적 대상으로서 재료나 형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념과 의미를 중시하는 사고(思考)의 예술로 시도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념미술은 형태의 구체화에 대한 미술 분야의 관심을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었고, 예술의 대상 또한 사물이 아닌 작가의 사고에 집중하면서 작품을 전개하기 위한 최초의 행위인 아이디어, 즉 개념의 발상을 작품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⁸⁾

미술비평가 토니 고드프리(Tony Godfrey)(1998)는 개념미술의 네 가지 표현형식을 제안하였는데, 상징화된 오브제, 이미지, 텍스트, 사물 등을 예기치 않은 문맥 속에 놓아 관심을 끌어내는 것, 작품과 개념, 행동 등을 모두 증거와 기록으로 남기는

것, 미술의 개념과 진술, 조사 등이 언어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분류한 바 있다.⁹⁾ 권자영(2008)¹⁰⁾은 개념미술에 대한 제논의를 바탕으로, 개념적 패션의 조형성을 도출하였는데, 매체의 혼합, 공간의 확장, 은유와 차용, 과정과 연속으로 그 특성을 분류하고 있다.

이와같은 개념미술의 전개와 표현 방식은 최철용의 디자인 전개와 컬렉션 진행에 중요한 미학적 근거가 되고 있다. 앞서, 최철용의 컬렉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난 5년간 최철용의 모든 컬렉션은 텍스트(text)로부터 출발하여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옷이라는 대상을 통해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관되게 작업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개념미술은 형태나 재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념과 의미에 관한 것이며 때로는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최철용 또한 어떠한 개념과 의미에 집중하면서 옷에 대한 부정과 의문을 통해 창조적인 것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외적으로 드러나는 조형성과 더불어 내재된 관념적 사고와 개념적 표현 특성을 중요시하는 개념미술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탈경계와 실험

Cy Choi의 브랜드 철학 ‘Boundary’는 경계와 경계 사이의 관계 또는 경계와 경계를 허무는 것을 의미한다. 최철용은 그래픽 디자이너, 영상 아티스트, 포토그래퍼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성이 드러나는 독특한 퍼포먼스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Cy Choi의 브랜드 철학과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컨셉 위킹 과정을 보여주는 이미지 북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각적 작업물과 영상물 등을 통해 컬렉션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하고, 그래픽 디자이너, 영상 아티스트, 포토그래퍼, 조형예술가 등 아티스트

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예술분야와 교류하며,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시도한다.

심층인터뷰에서 최철용은 ‘행위를 하는 패션’이라고 표현하며, 매 순간 계속해서 작업을 축적해가고 있으며, 각각의 작업이 모여 프로젝트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2011년의 ‘Hand printed tee’ 프로젝트와 『Folding Exhibiton』은 그러한 맥락에서 작업된 프로젝트였다. 그는 종종 옷에 대한 부정과 의문, 곧 ‘낯설게 하기’로부터 출발하며, 그의 패션을 ‘보는’ 관객과 ‘입는’ 관객으로 분류하고 그 사이를 꾸준히 오가며 자신의 예술적 경계를 넓혀가고 있다. 그는 전시를 위한 옷, 조형적 오브제로서의 옷, 그림으로서의 옷 등 ‘옷’에 대한 통상적인 사고를 벗어나 행동하고 전시하며, 컬렉션을 전개하는 것과는 별도로 순수한 아트 피스(art piece)로서의 옷을 작업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의 형태로 발표하고 있다. 그의 실험적 프로젝트는 마케팅의 수단이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을 확고히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브랜드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설치, 사진 작업을 비롯하여 매 시즌 아티스트의 작품집과 같은 완성도로 작업되는 이미지 북, 거대한 사이즈로 제작된 룩이 없는 룩 북, 1인 패션쇼, 패션쇼를 미디어처로 작업하고 다시 쇼트 필름으로 만들어 필름 페스티벌에 출품하는 등의 행위는 패션을 둘러싼 다양한 현대 예술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최철용의 탈경계적 미학을 보여주는 작업들이다.

IV. Cy Choi 최철용 패션 디자인의 미적 특성

1. 개념성

SFDF는 최철용이 의상(clothing)이라는 시그니

피양(signifiant)을 통하여 ‘도려내기(cut-out)’,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 ‘상대성(relativity)’, ‘접합(inosculation)’, ‘함축(connotation)’, ‘1 1 root2’ 등 새로운 시그니피에(signifie)를 상상하는 개념주의 디자이너라 평가한 바 있다.¹¹⁾ 개념주의 디자이너라고 불리울 만큼 개념미술적 사고와 접근 방식은 최철용의 패션 작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최철용은 텍스트를 먼저 결정하고, 텍스트의 정의와 텍스트에 담긴 의미에서 촉발된 느낌을 바탕으로 연상하고, 그것을 이미지화함으로써 의미를 완성한다.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의미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성에, 때로는 다른 영역의 개체를 의복에 도입하기도 하고, 의복 내 요소들을 재배치하거나 혼성하는 표현 방식으로 개념성을 표출하며, 화이트와 블랙을 주조로 하는 모노톤의 컬러와 특유의 절제된 라인으로 구현하고 있다. 개념성(Conceptuality)은 텍스트의 선정과 텍스트에 대한 개념적 해석, 리서치, 이미지화, 디자인 개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어지는 컨셉 워킹(Concept working)을 전제한다.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그의 모든 컬렉션은 텍스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패션 작업이 본질적으로 개념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8>과 <그림 9>는 ‘Image’ 라는 텍스트에서 출발했던 2014 S/S 컬렉션 작품으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곧, 어떠한 텍스트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보편적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연상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둔 작업으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경계선에 대한 사유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시인 유희경과의 협업이었다. 그는 유희경의 시를 ‘단어’와 ‘문장’으로 조각내어 오브제로 재가공하거나, 옷에 부착하였고, 런웨이의 소품으로 활용하였다. 그는 지퍼와 아웃포켓, 스트라이프 패턴을 주요 디테일로 활용하였으며, 맨투맨 티셔츠와 반바지, 라이더재킷, 수트에 이르기까지 Cy Choi만의 미니멀한 모던 룩으로 개념성

을 구현하였다. 그의 시그너처 컬러이기도 한 화이트와 블랙이 중심이 된 아이템 곳곳에 프린트와 어플리케를 이용하여 텍스트와 문장을 배치하였고, 모던한 테일러링으로 구현된 그의 수트는 보다 슬림해졌으며, 라펠과 칼라, 어깨선 등에 다른 컬러로 파이핑하거나 소재 블로킹을 통해 변화를 주었다. 디지털 그래픽 화면에서 보여지는 기본 X자 툭박스, 사선 형태의 이미지 툭을 그래픽모티프로 활용함으로써, 이미지가 하나의 텍스트이자 그 텍스트의 의미가 곧 이미지 자체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경계적 해석을 내포하였다. 런웨이에 등장했던 ‘오늘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 ‘나는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등의 문장은 유희경의 시에서 발췌한 문장이었으며, 단어와 문장으로 조각났던 텍스트는 피켓, 쇼퍼백 등 손수 작업한 오브제들과 함께 런웨이 쇼의 피날레에서 하나의 텍스트로 다시 완성되는 연출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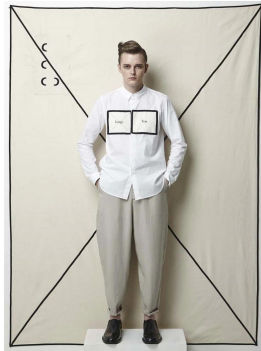
<그림 10>의 2012 S/S 컬렉션 ‘Connotation’의 작품들 또한 텍스트의 시각화를 견지하는 개념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연과 외연’이라는 함축적 의미에서 출발한 이 컬렉션에서 그는 ‘내연과 외연’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조합해 새로운 매개체를 만들고자 하였다. PT 쇼 형식으로 발표된 컬렉션의 의상들은 레이어링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미지화되었는데, 아이템의 레이어링 보다는 패턴과 소재 자체에서 층층이 겹치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내연’을 내포한 ‘외연’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개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의상의 실루엣은 전반적으로 매우 단순하며, 지층의 한 단면처럼 겹쳐진 소재들의 새로운 결합이나, 중첩되는 구성선, 포켓 디테일을 통해 생성된 새로운 구조적 라인들이 외연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내연과 외연에 숨어있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하여, 검은 재킷 안에 다른 컬러와 패턴을 배치한다든지, 셔츠의 부분부분에 자기 다른 컬러들이 보여지는 형식의 섬세한 표현이 나타났다.

Cy Choi의 첫 컬렉션인 2010 S/S ‘cut-out + boundary’ 컬렉션은 종이를 잘라서 도려내는 느낌을 옷으로 재현하는 과정을 보여준 작업이었다. 그는 ‘도려내다(cut-out)’라는 개념을 ‘옷’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디자인 예로, ‘개념’의 구현과정과 외적 표현의 완성을 위해 베스트(vest) 2개를 각각 잘라내어 하나의 옷으로 조합하였는데, 이미 완성된 옷을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재단이나 봉제기법으로는 보기 힘든 새로운 구조적 라인이 만들어졌다<그림 11>. 그밖에도 베스트의 밑단, 재킷의 칼라, 워크재킷의 앞단 등을 새로운 라인으로 도려내거나 각각 다른 옷과 조합하는 방식으로 ‘cut-out’을 표현함으로써 개념성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2011 F/W 컬렉션의 경우, ‘Inosculation(접합)’라는 텍스트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종(種)이 결합하여 중첩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접합’은 길고(long) 짧음(short), 유채색과 무채색, 딱딱함과 부드러움, 크고(macro) 작음(micro)과 같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각각의 장점과 접합함으로써 새로운 객체를 탄생시키는 의미로 해석되었으며, 구조(construction)의 접합, 재질(texture)의 접합, 선(line, silhouette)의 접합, 색(color)의 접합 등을 이용하여 옷을 디자인하였다. <그림 12>는 중첩된 소재와 포켓 디테일, 라인의 접합을 통한 개념성을 보여준다. 칼라리스 코트(collarless coat), 싱글 브레스티드 코트,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 등 컬렉션의 아이템들은 슬림하고 간결한 실루엣으로 표현되었으며, 켈트포켓을 세로 방향으로 활용하고, 포털한 코트에 캐주얼 소재의 아웃포켓을 배치하거나, 포켓에 해당하는 위치에 다른 원단을 덧대어 자리만 표시하는 등 의외의 장소에 의외의 소재와 디테일을 접합하는 표현형을 보여주었다.



<그림 8>
2014 S/S 'IMAGE'
(출처: www.style.co.kr)



<그림 9>
2014 S/S 'IMAGE'
(출처: www.cychoi.com)



<그림 10>
2012 S/S 'connotation'
(출처: www.cychoi.com)



<그림 11>
2010 S/S 'cut-out+boundary'
(www.cychoi.com)



<그림 12>
2011 F/W 'Inosculation'
(www.cychoi.com)

2. 예술적 실험성

최철용은 패션을 하나의 개념적인 조형미술로 보고 예술과 의상을 결합시킨 양식을 표현한다. 최철용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남성복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으며, 남성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남성복 본연의 모습에서 찾고 있다. 최철용은 패션을 둘러싼 다양한 현대 예술,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 사진과 영상, 산업 디자인 등과의 결합을 통해 예술적 오브제로서 옷을 바라보며, 패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실험적 경향을 보인다. 그는 런칭 초기부터 끊임없이 브랜드의 방향성을 고민하였고, 아트와 인스퍼레이션, 그래픽과 패션이 결합되어야 한

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왔다. 이는 옷에 대한 부정과 의문, 사물을 낯설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디자이너가 지속적으로 작업해 온 다양한 프로젝트와 장르를 초월한 협업을 통해 예술적 실험성을 표출하고 있다.

실험적 프로젝트와 타 예술분야와의 협업은 단순히 Cy Choi의 옷이나 브랜드를 소개하기 보다는 최철용 디자이너 자신 혹은 Cy Choi의 미학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다. 그만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는 때론 옷이 주체가 되지 않거나 옷과 무관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점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실험적 프로젝트를 통해 패션 그 이상의 예술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2010년, 서울 소격동에 위치한 aA 디자인 뮤지

업에서 열린 전시는 Cy Choi가 지향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디자이너가 지향하는 예술적 실험성을 통합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그래픽 디자이너 김도형, 일러스트레이터 오정택, 포토그래퍼 김권진, 영상 아티스트 안마노, 인터스트리얼 디자이너 최근식, 뉴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컬렉션의 모델인 제임스 파우더리(James Powderly)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디자이너들과의 협업하였다.¹²⁾ aA 디자인 뮤지엄 건물 전면에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컬렉션 영상을 상영하고, 전시공간에는 Cy Choi의 컬렉션 의상을 틀에 걸거나 놓혀 전시하였으며, 대형 이미지 북과 룩 북은 바닥에 놓여져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컬렉션 과정의 드로잉과 미디어 아트 등이 전시되면서 실험적이고 크리에이브한 패션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

최철용의 예술적 실험성이 강하게 표출되었던 아트 바젤 프로젝트는 2011 S/S 시즌의 '1 1 root 2' 컬렉션과 연결된 작업이었다. 1 1 root 2는 1:1:root2의 수학적 비례를 의미하며, 그 바탕은 유리수와 무리수의 관계, 삼각형과 관련된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는 컨셉을 설정하고, 디자인하고, 작품을 제작하여 아트 바젤에 참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진과 그림으로 하나하나 기록하였으며, 기록한 과정을 전통적인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하여 핸드메이드 이미지 북으로 제작하였고, 삼각 가방의 결과물을 만들어 매고 다니면서 대중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하였다. 또한 1 1 root 2 컬렉션은 다양한 영역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룩이 없는 룩 북'으로 제작되었고, 1인 패션쇼를 촬영 후 이를 일일이 미니어처 종이 인형으로 만들고, 미니어처 2000여개가 등장하는 패션쇼를 쇼트 필름으로 만드는 실험적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특히 쇼트 필름은 컨셉과 이미지, 옷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장르로 2011 S/S 시즌 이후로 매시즌 컬렉션을 위

한 트레일러를 만들어 발표하고 있으며, 텍스트와 이미지, 음악, 영상, 패션 작업이 통합적으로 어우러져 Cy Choi의 예술적 실험성을 표출한다.

2012년 『실험실로서의 학교 72-1』 프로젝트 또한 최철용의 예술적 실험성을 표출한 작업이었다. 2012년 12월 10일 진행된 오프닝 퍼포먼스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던 커튼 천을 이용하여 교실 전체를 새로운 창작의 공간으로 재해석하고, Cy Choi의 블랙 수트를 입은 교사 1명과 도트 패턴의 의상을 입은 5명의 학생 모델들이 공간을 채우는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패션과 영상, 퍼포먼스가 결합된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된 후 편집되어, 전시 기간 중 상영되었다.

2013년에는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 당구장에서 『Deux ombre』 전시와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두 개의 그림자'라는 의미의 이 프로젝트에서 '그림자'는 빛과 어둠이 섞여 만들어 내는 다양한 감정의 모습이며, 이는 어떠한 대상과 공존하는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의미한다. '두 개'는 상호보완을 통해 각기 다른 하나들의 존재를 명확히 하는 '관계'에 대한 시각을 대변한다. 전시 오프닝에서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는데, 전시 공간을 모두 활용하는 동시에 단순히 옷에만 집중된 패션쇼가 아닌 '두 개의 그림자'라는 이야기를 구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표현물을 통해 관객 스스로 느끼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Cy Choi 패션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의도하였고, 이를 통해 디자이너의 예술적 실험성이 표출되었다.

최철용은 패션 디자인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그의 아트 프로젝트는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 패션의 새로운 가능성과 관계에 대한 실험이다.

3. 최소성

최철용은 텍스트로 제시되는 '개념'의 표현을 위하여 의복을 분리하고 재구성하거나, 해체, 자르



<그림 13>
Cy Choi 의 포켓 디테일
(출처: www.cychoi.com)



<그림 14>
절제된 선 장식
(출처: www.cychoi.com)

기, 계획된 미완성 등의 표현 형식을 활용함에 있어 단순하고 절제된 최소 표현을 유지한다. 최철용의 디자인이 내포하고 있는 최소성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형태로부터 본질과 개념, 의미를 찾는 형태적 최소화와 단순성을 보여준다. 이는 텍스트와 의미,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그의 개념주의적 접근 방식을 조형적으로 완성하는 가치이자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이다.

패션에서의 최소성이란 불필요한 장식과 디테일을 배제함으로써 오랜 기간이 지나도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스타일을 말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조형수단과 최소한의 제작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을 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¹³⁾ 패션에서의 최소성은 색채, 소재, 디테일, 실루엣에 걸쳐 표현될 수 있다. 최철용은, 옷의 무게 중심을 흐트러뜨린 코트, 테일러드 재킷의 크고 작은 포켓, 포켓과 몸판사이의 배색, 내추럴한 실루엣과 모던한 소재 사용 등 절제된 완전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재료와 형태, 구조를 고려한다. 최철용은 화이트와 블랙, 그레이 등 무채색을 위주로 한 모노톤의 미니멀한 배합을 Cy Choi의 시그니처 컬러로 하고 있다. 디자인 전반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슬림 실루엣과 미니멀한 오버 사이즈 실루엣은 개념적으로 구현된 컨셉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완성한다. 그는 하나의 아이템 안에서 미니멀한 컬러를 유지하되 서로 다른 소재를 믹스 매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단순하고 매끈한 표면의 소재, 높은 퀄리티의 클래식한 소재를 활용하여 심플함을 극대화한다. 또한 Cy Choi 패션디자인의 디테일은 그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표현수단으로, 주로 그래픽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하고 명료한 텍스트 패턴이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이트와 블랙, 그레이와 블랙 등 단순하고 명료한 컬러 조합과 가시도 높은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최소성을 표출한다. 직선과 스트라이프, 지그재그 등 미니멀한 기하학적 선 장식을 즐겨 사용하며, 메탈릭 지퍼와 아웃포켓, 파이핑을 이용한 라인 장식을 구조적 디테일로 활용함으로써 최소 표현과 미적 심미성의 조화를 이룬다. 특히 포켓은 그의 옷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면서 절제된 표현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디테일로, 다양한 크기, 입체적 재단, 의외의 위치와 각도로 배치하는 등의 형식으로 절제된 라인의 미니멀한 실루엣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개념주의적 의미를 부여하는 디테일로 활용되고 있다<그림 13><그림 14>.

V. 결론 및 제언

한류 열풍과 함께 2000년대 들어 등장한 한국의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은 21세기 한국 패션 디자인의 글로벌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에 대한 연구와 홍보는

한국 패션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SFDF와 Seoul's 10 soul에 선정되며 대중과 비평가들로부터 예술적 창조성과 프리덕트 베이스의 비즈니스 감각을 인정받고 있는 Cy Choi 최철용은 개념미술에 근거한 고유의 패션 문법과 장르를 초월하는 협업을 통한 탈경계와 실험적 관점에 미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 컬렉션과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진 결과들과 그러한 패션 작업의 근간이 된 미학적 시각을 근거로 최철용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미술적 접근 방식에 바탕을 둔 개념성이다. 최철용의 작품은 개념미술적 전개 과정을 거쳐 창조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개념미술의 전개와 표현 방식은 최철용의 디자인 전개와 컬렉션 진행에 중요한 미학적 근거가 되었고, 최철용은 텍스트(text)로부터 출발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미지화하며, 그것을 옷이라는 최종 대상을 통해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관되게 작업해 오고 있다. 텍스트로 보여지는 ‘개념’은 의복을 분리하고 재구성하거나, 해체, 자르기, 비대칭의 구조 형태, 계획된 미완성 등의 표현 특성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지 북과 쇼트 필름을 통해 개념의 형상화 과정을 기록하고 보여준다. 이와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조형성과 더불어 내재된 관념적 사고와 개념적 표현 특성을 중요시하는 개념 미술적 문법을 차용한 Cy Choi의 패션 디자인은 개념성을 내포한다.

둘째, 예술적 실험성이다. 이는 옷에 대한 부정과 의문을 바탕으로 ‘낮설게 하기’로부터 출발하며, 최철용이 지속적으로 작업해 온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와 퍼포먼스, 타 예술분야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패션을 둘러싼 다양한 현대 예술 장르, 즉 그래픽 디자인, 사진, 영상, 산업 디자인 등과의 조우를 통해 예술적 오브제로서의 옷에 접근하며, 룩이 없는 룩 북, 1인 패션쇼, 쇼트 필름, 공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단순

한 옷과 패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예술적 실험성을 표출하고 있다.

셋째, 최소성이다. 최소성은 최철용 디자인의 표현특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근거하며,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을 통해 개념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Cy Choi의 디자인을 완성한다. 화이트, 블랙 컬러를 주조로 하는 모노톤의 컬러 배합, 인체에 조화되는 직선과 기하학적인 선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슬림 실루엣, 미니멀한 기하학적 선 장식과 절제된 라인의 포켓 디테일을 활용함으로써 최소 표현과 미적 심미성의 조화를 표출한다.

최철용의 옷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학적 요소들을 착용하되 간결하며, 예술적 실험성을 추구하되 튀거나 과장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성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최근의 패션 흐름에도 휩쓸리지 않으며, 무채색을 기조로 하는 남성복 본연의 모습을 유지한다. 여기에는 오랜 컨설턴트 경력을 바탕으로 예술적 창조성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조율하는 최철용의 비즈니스 감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제 세컨 브랜드의 런칭과 함께 보다 공격적인 해외 시장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5년간 확립해 온 Cy Choi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미적 정체성은 한 걸음 도약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 패션 디자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진정한 패션 글로벌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한국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연구와 아카이브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연구들이 후속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윤희 (2014). 21세기 한국 패션 디자이너의 표현 특성: 스티브 J. & 옌니 P.를 중심으로, 2014 한국복식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77-178.

- 2) 이민선 (2014). 미학적 개념으로 본 이석태 디자인 분석: 2011년 S/S-2013년 S/S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4(2), pp.157-167.
- 3) Cy Choi 공식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14. 6. 20. <http://www.cychoi.com>
- 4) 엄지은 (2011.11.29). 제7회 삼성패션디자인펀드 수상자 '최유돈, 최철용', 머니투데이, 자료검색일 2014. 6. 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2911008277954&outlink=1>
- 5) Morgan, Robert C. (1996). 개념미술, 양은희 옮김 (2007). 서울: 케이브리지, pp.10-19.
- 6) Wood, Paul (2002). 개념미술, 박신의 옮김 (2003). 서울: 열화당, pp.7-8.
- 7) 윤정숙 (2003). 개념미술의 알레고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 8) 김로운 (2012).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개념미술의 표현적 특성: 후세인 살라얀과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14.
- 9) Godfrey, Tony (1998). 개념미술, 정혜숙 옮김(1998). 서울: 한길아트, pp.7-8.
- 10) 권자영 (2008). 컨셉추얼 패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65-112.
- 11) 삼성패션&디자인펀드 공식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14. 6. 20. <http://www.sfdf.co.kr/winners/index.jsp?id=201202>
- 12) 이찬희 (2011. 4. 29). Special Features: Cy Choi, 지콜론, 50(-), pp.116-129.
- 13) 김은덕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Cy Choi's Fashion Design

Lee, Jin Min

Assistant Professor, Dept.of Textile & Clothing Coordination, Shingu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investigate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he fashion design of Cy Choi, who has a unique aesthetic philosophy and a growing presence in the fashion market. Cy Choi is a brand with the brand philosophy of 'boundary'. It is a classic and high-end men's wear brand. Since its launch in 2009, Cy Choi has carried out ten fashion collections and several projects. The aesthetic vision expressed in Cy Choi's fashion design is an approach of conceptual art and a de-boundary and experimental point of view. The collection starts from text. He interprets the meaning of text. Then, the text is converted into image. Finally, it is expressed to clothes. He reveals the de-border perspective that transcends genr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various artists. On the basis of aesthetic visi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Cy Choi's fashion design are as follows. The first aesthetic characteristic is the conceptuality which is based on conceptual art. Text is represented by the separation of clothing, reorganization, dissolution, cropping and asymmetrical forms.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artistic experimentation. It starts from the negativity and questions about clothe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trange views'. Through collaborations with areas such as graphic design, photography, video and industrial design, the clothes are considered as an artistic object. The third characteristic is minimalism. Minimalism is expressed through achromatic colors, natural slim silhouettes, geometric line decorations and various types of pocket details.

Key words: Korea fashion designer, Cy Choi, conceptuality, artistic experimentation, minimalism

